

# 올림과 잠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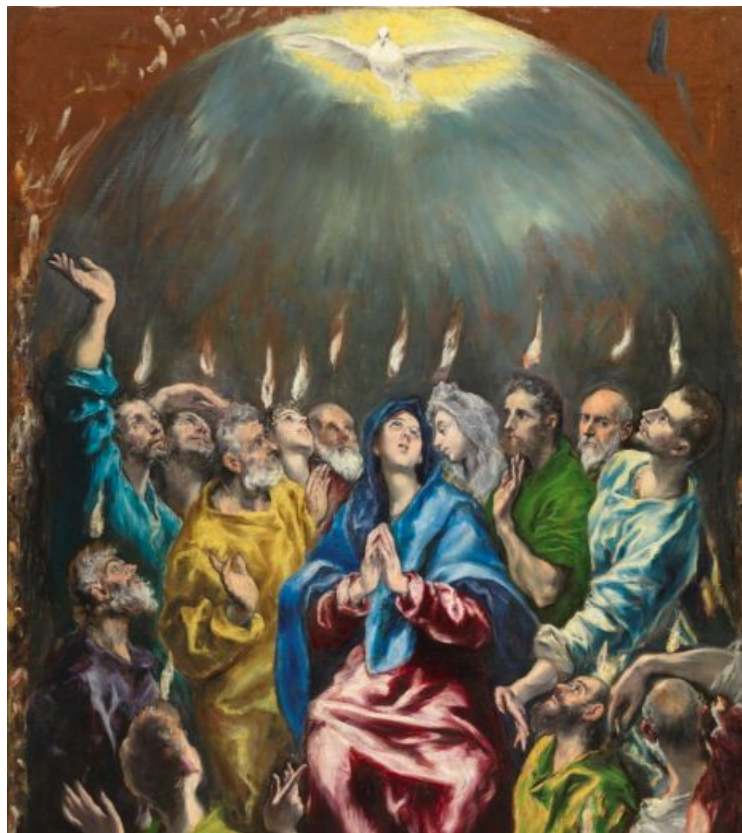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Pastor: Rev. Simon, Seungsoo Oh  
편집: 본당 편집회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 성령 강림 대축일 (2026년 5월 24일)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사도 2,3)



성령 강림 (부분) 엘 그레코 (El Greco) 1600년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국립미술관

이 성화는 원래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 신학교 성당의 일곱개의 제단화 중 하나로 상단의 십자가형 그림 바로 오른쪽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엘 그레코는 신비주의 화풍으로 유명하며 신약 성경을 주제로 많은 성화를 그렸다. 이 작품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위에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빛을 내뿜고 불꽃 모양의 빛이 사람들 머리 위로 내려오고 있다. 가운데 성모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손을 벌려 환희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성모님 바로 오른쪽 옆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옆에 녹색옷의 사도 요한, 그리고 반대편에 노란색 옷을 입은 베드로가 성모님을 바라보고 있다. 화가는 사도 요한의 옆에 자기 자신의 얼굴도 그려 넣어 성령 강림의 신비 안으로 우리도 함께 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카톨릭 성가집 248번 “한 생을 주님 위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248                    한 생을 주님 위해                    성모

가벼운 기분으로                    손복희 작사  
Trad. Melody

한 생을 - 주 님 위 해 바 치 신 어 - 머 니

아 드 님 - 이 가 신 길 함 께 걸 으 - 셧 네

1. 어 머 니 마 - 음 향 - 상 아 들 에 게 있 고 - 예  
2. 십 자 가 지 - 신 주 - 님 뒤 따 라 가 시 며 - 지  
3. 주 님 의 뜻 - 을 위 - 해 슬 픔 도 삼 키 신 - 말

수 님 계 - 신 곳 에 늘 - 함 께 하 셧 네  
수 극 한 고 - 통 중 에 기 - 도 드 리 셧 네  
로 다 할 - 수 없 는 어 - 머 니 의 사 랑

D.C.

##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회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회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중 하나를 읽어 주십시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1,2-11)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1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2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3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4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5 그대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6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7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 8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9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10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11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요한 20,19-31 나눔 묵상

##### ■ "평화가 너희와 함께" (19·21·26절)

- 그동안은 저와 가족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구절을 묵상하며 앞으로는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한 평화도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RC2)
- 성당에 다니면서 평화로움을 많이 느끼고, 미사 중 '평화를 빕니다' 인사를 통해 공동체적 평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많은 지금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RC2)
- 저는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습니다. 불안과 걱정, 근심, 화, 욕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기도를 드리면 평안함을 얻습니다. 다른 신자분들도 기도를 통해 같은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RC2)

##### ■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20절)

- 항상 이 복음 말씀 묵상 때 토마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심할 필요 없도록 먼저 나타 나 보여주시며 사랑을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RC1)

#####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1절)

-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두렵고 무서웠을 제자들을 떠올리며, 우리에게도 탓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믿는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현실적인 권태감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고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 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RC1)

##### ■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8절)

- 부활 시기에 미사를 드리면서 울컥하는 감정을 많이 느꼈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복받치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떠올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RC2)

##### ■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29절)

- 의심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배제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같은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AA2)
-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정했습니다. (RC2)
- 토마스 사도의 이야기에 감정이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토마스가 8일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깨닫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공동체 안에 머물며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C2)
- 작년 세례를 받은 직후, 토마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해 선택했던 구절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하느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C2)
- 전쟁과 같은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학생들이 물어올 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선과 악이 함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기도하며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RC2)

##### ■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 (30절)

- 사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겪으신 수난과 고통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고통과 실망,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간절함을 떠올리니,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뿐 아니라 수많은 표징을 통해서라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한 사람까지 구원하고자 하신 하느님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C1)

## 요한 9,1.6-9.13-17.34-38 나눔 묵상

### ■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7절)

- 진흙을 발라 가서 씻으라는 과정이, 제가 은총을 받으려면 직접적으로 무언가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가 왔습니다. (RC3)
-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는 말씀을 통해, 신앙적으로 눈을 뜨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NV3)

### ■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37절)

- 우리 삶 안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BL1)
- 저희는 늘 그분의 모습을 보려 하고 은총을 구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RC3)

### ■ "주님, 저는 믿습니다" (38절)

- 일 때문에 주일에 자주 못 오게 되는데, 처음 성당에 왔던 때를 다시 기억하면서, 약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NV3)
- 쉽게 믿을 수는 없었고 와닿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리라 다짐합니다. (NV3)

##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카톨릭성가 147번 “임하소서 성령이여”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Scan me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147

Choral



1. 임 하 소-서 성- 령 이 여 우- 리 의 맘 비 추 소 서 창
2. 위 로 자-신 성- 령 이 여 천- 주 께 서 내 려 주 신 생
3. 온 갖 은-혜 근- 원 이 요 성- 부 의 능 력 이 시 며 천
4. 우 리 마-음 비- 추 시 고 우- 리 믿 음 복 돌 우 사 우



조 하 신 우 리 들 을 은 총 으 로 돌- 보 소 서  
 명 이 며 사 랑 이 요 영 혼 의 빛 되- 시 도 다  
 주 보 낸 사 신 이 라 말 씬 은 혜 베- 푸 소 서  
 리 들 의 모 든 고 난 즐 겨 참 게 하- 읊 소 서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 18,20)

이번 사순을 떠올리면 제가 키가 작은 어린아이였던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인파 속을 걸어가던 그때, 사람들의 빠른 걸음 속 저의 앞, 뒤, 옆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갈 곳도 보이지 않고 의지할 곳은 오직 따뜻한 엄마의 손, 걸음걸음 속 하늘만 올려다볼 수 있었지만, 너무나도 작은 어린아이였던 저는 따라가기에 바빠 하늘마저도 올려다볼 수 없었던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듯, 앞이 보이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그때 잡은 엄마 손이 간절하게 떠오르던 시간, 순간순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숨을 쉴 수 있으리라 믿으며 부활의 기쁨을 향해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시내티 찬양 봉사 제의를 받고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될 거 같아 거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고단한 몸을 누인 침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작은 공동체에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도 함께함을,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네 주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응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은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성당에서만 했었기에 다른 곳에 있는 공동체는 어떤지 알 길이 많이 없었지만, 이번 찬양 봉사를 다녀오며, 작든 크든 공동체에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가족 같은 정을 듬뿍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손님이라고 사랑으로 웃음으로 마주하고 챙겨 주신 신시내티 신부님과 신자분들께도 감사함을 느끼고 돌아오는 그 길에 저의 비어 있던 마음도 주님이 가득 채워 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행복”이 오늘 제 목상을 가장 잘 담아내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가사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주님 부족한 저이지만, 언제나 주님의 손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 엄마, 나의 어머니

0219



엄마, 나의 어머니

가슴에 하늘을 담고,  
사셨을 엄마.

가슴에 나를 품고,  
사셨을 엄마.

가슴에 그 뚫린 가슴에  
사랑을 지고,  
이렇게 살아오신  
나의 어머니.

0219

글·그림 배영길 베드로 신부